

국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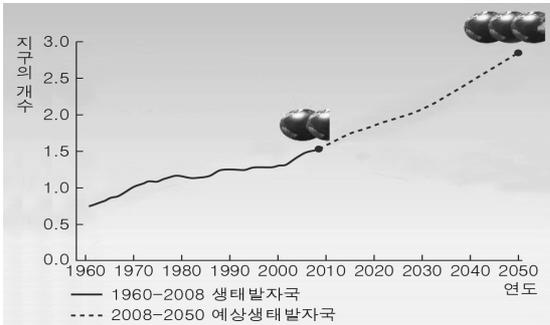
제 1 교시

1

[1~2]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지금부터 지구 환경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태발자국'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잠시 후) 네,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 보는 말일 겁니다. 생태발자국이란 인류가 지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거나 폐기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진짜 발자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 면적을 단위로 하는 환경 지수이지요. 생태발자국은 캐나다의 윌리엄 리스 교수가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식량, 주택, 의복, 여가 활동 등과 같이 인류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비용으로 계산되어 토지 면적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자원을 많이 소비할수록 생태발자국은 넓어지게 되지요.

'국제 생태발자국 네트워크'라는 웹 사이트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생태발자국과 지구 전체의 생태발자국이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구인 한 사람당 적정 생태발자국은 0.018 km²였으나 실질적 생태발자국은 0.026 km²였습니다. 실질적 생태발자국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0.09 km², 브라질은 0.024 km²였고, 인류의 과도한 자원 사용으로 인해 생태발자국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도표를 봐 주세요.



보시다시피, 2008년에 생태발자국은 이미 지구 1.5개 정도의 면적이었습니다. 자원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지구 3개 정도의 면적에 이르게 됩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 용량보다 넓은 면적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 자원을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점점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생태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 아껴 쓰기, 빈 교실의 전등 끄기, 가까운 거리 걸어가기 등의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자원의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원의 소비를 줄일수록 생태발자국도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발자국, 이제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1.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한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점]

가. 발표 유형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한 설득적 말하기 ①

나. 청중 분석

- 대상: 학급 친구들
- 특성: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하여 많이 들어 보았으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

다. 발표 전략

- 도입 부분에서 생소한 용어를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함. ②
-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함. ③
- 구체적 수치와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움. ④
- 질문의 형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함. ⑤

2. 위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상호 평가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기한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태발자국의 개념을 설명해 주어야 청중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 ② 생태발자국을 산출할 때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청중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 ③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생태발자국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④ 최근의 생태발자국을 알아 볼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알려 준다면 청중들에게 유용하지 않을까요?
- ⑤ 물을 아껴 쓰거나 빈 교실의 전등을 끄는 등의 일이 왜 생태발자국을 줄이는 일인지 발표 내용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요?

3. 다음 대화에서 선생님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어, 지원이구나. 그런데 네 단짝 민지는 어디 가고 혼자 앉아 있니?
지 원: 민지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왜? 너희들 단짝이라 항상 같이 있었잖아.
지 원: 민지가 저한테 화가 났는지, 같이 잘 안 다녀요.
선생님: 무슨 일 있었니?
지 원: 며칠 전에 제가 과제물을 작성하느라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민지가 와서 국어 시험 범위를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시큰둥하게 모른다고 하고 계속 잤는데, 그 후부터 저를 못 본 척해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봐.
지 원: 저도 그러고 싶는데, 제가 볼 때마다 민지의 표정이 너무 싸늘해서 말을 못 붙이겠어요.
선생님: 그래도 늦기 전에 빨리 가서 얘기해 보렴. 예전에 선생님도 친한 친구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순간은 정말 어색하고 민망해도 친한 친구이니 만큼 금세 서로 이해하게 되더라고. 네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도 금세 웃게 될 것 같은데? 어서 가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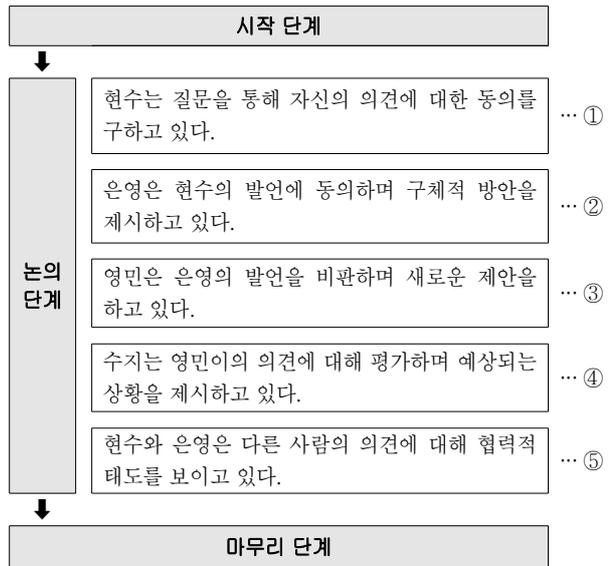
- ①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 ② 유머와 재담으로 상대방의 긴장감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 ③ 청유형의 제안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 ④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화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급회장: 지난번 체육 대회에서 우리 반이 종합 우승을 해서 상품으로 문화 상품권을 받았습시다. 오늘은 이 문화 상품권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수: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반 단합 대회가 있는데, 상품으로 받은 문화 상품권을 단합 대회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 데 썼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 영: 네, 저도 단합 대회 때 문화 상품권을 사용하자는 현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합 대회가 끝나고 반 전체가 저녁 식사를 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자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급회장: 네, 단합 대회 후 뒤풀이로 저녁 식사를 하는 데 사용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영 민: 단합 대회 때 사용하자는 의견도 좋기는 한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반에는 학급 문고가 있긴 하지만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 상품권으로 책을 사서 학급 문고를 채웠으면 합니다.

수 지: 영민이가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독서 시간이 있는데, 사실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독서 시간이 잘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상품권으로 책을 사서 학급 문고를 채우면 독서 시간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요.
학급회장: 학급 문고를 채울 도서를 구입하자는 새로운 의견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봅시다.
현 수: 듣고 보니 영민이의 말이 일리가 있네요.
은 영: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학급회장: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문화 상품권으로 학급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모여 구입 도서 목록 선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 위 토의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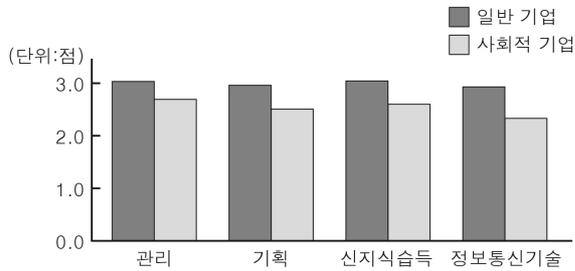


5. 위 토의에서 학급회장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과 의견 충돌을 조정하고 있다.
- ② 토의의 중간에 참여자들의 의견을 요약해 주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들에게 토의 안전에 대해 규정해 주고 있다.
- ④ 토의의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 회의의 안전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토의 안전에 대해 결론을 얻는 방향으로 토의를 유도하고 있다.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통계 자료: 기업별 종사자의 업무 숙련도 비교



[한국OO연구원]

(나) 사회적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순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어려운 이유	비율
1	교육 시간 동안 근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함.	31.4%
2	교육을 위한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움.	26.7%
3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함.	23.3%
4	근로자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저조함.	9.5%
5	기타	9.1%

(다) 전문가 의견

사회적 기업은 주로 저소득층, 고령자 등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발전이나 공익 증진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주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립을 위한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교육 비용이 부족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등 교육 기반이 취약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 교수]

6.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를 활용하여 일반 기업에 비해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업무 숙련도가 낮음을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체 인력, 경비, 적합한 프로그램 등을 확보해야 함을 제시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여건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업무 숙련도가 낮은 원인으로 종사자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함을 제시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7.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문구를 작성하였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보기 >

- (다)에 제시된 사회적 기업의 목적을 포함할 것.
- 비유적 표현과 대조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사회적 기업은 중산층의 복지 실현을 지향합니다. 건강하고 편리한 사회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② 사회적 기업은 공익을 추구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③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습니다. 여리고 작은 나무가 강하고 큰 나무로 성장하도록 하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 ④ 사회적 기업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작은 빗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국가의 주요 산업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 ⑤ 사회적 기업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합니다. 서로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8. '전통 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자기 점검을 해 보았다. 수정 및 보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I. 서론

- 가. 전통 시장의 의의와 필요성
- 나. 전통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실태

II. 전통 시장 쇠퇴의 원인

- 가. 시설 부족
- 나. 소비자의 구매 형태 다양화
- 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 유인 요소 부족

III. 전통 시장 활성화 방안

- 가. 휴게실, 주차장 등 고객 편의 시설 확충
- 나. 소비자 유형별 판매 전략 수립
- 다. 재활용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IV. 결론

전통 시장 보존의 중요성

- ① 'II-가'는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고객 편의 시설 부족'으로 구체화한다.
- ② 'III'에는 'II-다'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고려한 지역 특화 상권 개발'을 추가한다.
- ③ 'III-나'는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II'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④ 'III-다'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 ⑤ 'IV'는 논지의 흐름을 고려하여 '전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로 수정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깨끗한 교실 환경 만들기’에 대한 글을 써 보자.

과제의 초고

교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 특히 교실 뒤편의 쓰레기통 주변이 가장 지저분한 것 같다. 그런데 요즘 들어 교실이 많이 더러워져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왜 그런 것일까?

이는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방지하면 깨진 지점을 중심으로 더 큰 파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 즉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 나도 실수로 유리창을 깨 경험이었다.

교실에서 친구들 중 한두 명이 휴지를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지 않고 멀리서 대충 던지고 가면 주변이 쓰레기로 지저분해진다. 이것을 보고 다른 친구들 역시 휴지를 쓰레기통에 제대로 넣지 않기 시작하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주변이 점점 지저분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이유는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 방지했다.

그러면 교실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쓰레기라도 그때그때 줍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쓰레기통 주변이 더 이상 지저분한 곳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화분을 놓거나 산뜻한 벽지를 붙일 것을 제안한다.

9. ‘과제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ㄴ. 동일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조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ㄷ. 속담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ㄹ.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뒤의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② ㉡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③ ㉢은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④ ㉣은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방치했기 때문이다’로 고친다.
- ⑤ ㉤에는 문장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교실은’을 추가한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탈락에 대해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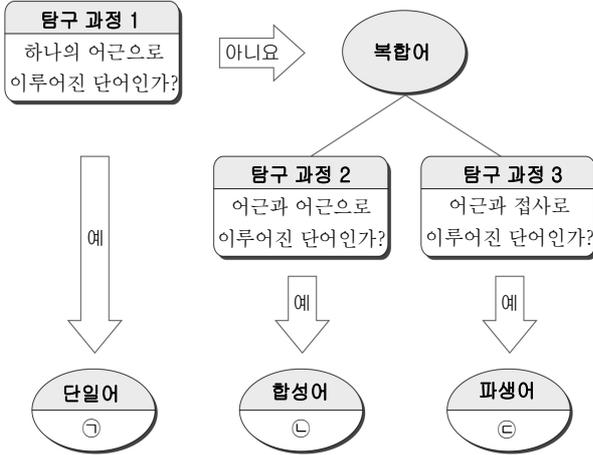
- ㉠ ‘돌다’의 활용: ‘돌-’+‘-고’→돌고, ‘돌-’+‘-니’→도니 ……
- ㉡ ‘날다’의 활용: ‘날-’+‘-고’→날고, ‘날-’+‘-아’→날아 ……
- ㉢ ‘쓰다’의 활용: ‘쓰-’+‘-고’→쓰고, ‘쓰-’+‘-어’→써 ……
- ㉣ ‘가다’의 활용: ‘가-’+‘-고’→가고, ‘가-’+‘-아’→가 ……

- ① ㉠에서는 어간의 끝소리 ‘ㄷ’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군.
- ② ㉡에서는 ‘날아’를 [나아]로 발음하므로 음운의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는군.
- ③ ㉢에서는 어간의 모음 ‘-’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군.
- ④ ㉣에서는 어간의 모음과 동일 음운이 연결될 경우 한 음운이 탈락되는군.
- ⑤ ㉠~㉣를 보니, 음운의 탈락에는 자음의 탈락과 모음의 탈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12. 단어 형성법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는 탐구 과제를 수행해 보았다.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탐구 과제 '논밭', '하늘', '지우개', '헛수고', '높푸르다'를 단어 형성법에 따라 분류해 보자.



- | | | | |
|---|---------|-----------|----------------|
| | ㉠ | ㉡ | ㉢ |
| ① | 하늘 | 논밭, 높푸르다 | 지우개, 헛수고 |
| ② | 하늘 | 논밭 | 지우개, 헛수고, 높푸르다 |
| ③ | 지우개 | 논밭, 하늘 | 헛수고, 높푸르다 |
| ④ | 지우개 | 헛수고, 높푸르다 | 논밭, 하늘 |
| ⑤ | 하늘, 지우개 | 논밭 | 헛수고, 높푸르다 |

13.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단어들은 의미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둘 이상의 단어가 맺는 의미 관계를 ㉠유의 관계,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의미 관계를 ㉡반의 관계, 한 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상하 관계라 한다.

- | | | |
|---|-------------|------------|
| | ㉠ | ㉡ |
| ① | 옷 : 의복 | 밤 : 낮 |
| ② | 서점 : 책방 | 기쁨 : 슬픔 |
| ③ | 걱정 : 근심 | 학생 : 남학생 |
| ④ | 환하다 : 밝다 | 오르다 : 내리다 |
| ⑤ | 분명하다 : 명료하다 | 숨기다 : 드러내다 |

14. 다음과 같은 문법 수업에서 ㄱ~ㄴ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답니다. 그럼, 다음 문장들에 쓰인 서술어의 자릿수를 알아봅시다.

- ㄱ. 물이 얼음이 되었다.
- ㄴ. 우정은 보석과 같다.
- ㄷ. 누나가 새 책을 샀다.
- ㄹ. 동수가 교가를 부른다.
- ㅁ. 민수가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였다.

- ① ㄱ의 서술어 '되었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② ㄴ의 서술어 '같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ㄷ의 서술어 '샀다'는 주어와 관형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④ ㄹ의 서술어 '부른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⑤ ㅁ의 서술어 '붙였다'는 주어와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5.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의 부정 표현에 대해 탐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1>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 '안'과 '못', 부정 용언 '아니하다'와 '못하다'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부정 부사로 만들어진 부정문을 짧은 부정문, 부정 용언으로 만들어진 부정문을 긴 부정문이라고 한다.

<보기2>
민규: 오늘 탁구 시험이 있던데 넌 ㉠ 안 가니?
진우: ㉡ 안 가는 게 아니라 ㉢ 못 가는 거야.
민규: 왜?
진우: 내가 예선에서 영수를 ㉣ 이기지 못했어.
민규: 내가 ㉤ 못 이겼다고? 영수 대단하구나.

- ① ㉠, ㉡, ㉢, ㉤은 부정 부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부정문이군.
- ② ㉡에서 '안'이 사용된 부정 표현은 '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③ ㉢에서 '못'이 사용된 부정 표현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④ ㉤은 부정 용언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부정문이군.
- ⑤ ㉠과 ㉤을 보니, 긴 부정문이나 짧은 부정문이나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에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철학자 로버트 노직과 존 롤스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모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한다.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결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직은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와 사회적 빈부 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복지 제도나 누진세 등과 같은 국가의 간섭에 의한 재분배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다만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람들의 자발적 기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한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조건은 사회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정의로운 세계의 규칙 또는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두 번째 조건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인간의 출생, 신체, 지위 등에는 우연의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누구나 우연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된다. 마지막 조건은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소유일지라도 그 이익의 일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자발적 기부나 사회적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 볼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노직과 롤스는 이윤 추구나 자유 경쟁 등을 허용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노직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연적·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을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 반면에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한편, 사람들이 공정한 규칙에 합의하는 과정도 중시하며, 자연적·사회적 불평등을 복지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의 주장은 소수의 권익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했으며, 평등의 이념을 확장시켜 복지 국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16.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④ 어떤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하나의 논점에 대한 두 견해를 소개하면서 비교하고 있다.

17. 윗글을 이해한 학생이 롤스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기 —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로운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다수의 최대 행복이 보장된다면 소수의 불행은 정당한 것이 되고, 반대로 다수의 불행이 나타나는 상황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벤담은 결인과 마주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거리에서 결인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결인들을 모두 모아 한곳에서 생활시키는 강제 수용소 설치를 제안했다.

- ① 다수의 처지를 배려할 때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 ②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겨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 ③ 감정적 차원에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를 지키지 않는 태도가 아닌가요?
- ④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인에게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⑤ 결인이 된 것은 우연적 요소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정의로운 것이 아닌가요?

18. 윗글의 **노직**, **롤스**가 <보기>의 신문 기사를 읽은 후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부상 투혼' ○○○, 또 다른 감동을 주다

프로 야구 선수 ○○○은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등판하여 승리 투수가 되었다. ○○○은 1승을 올릴 때마다 1백만 원씩 난치병 치료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2010년에는 다승왕 상금으로 받은 1천만 원을 내놓기도 했다. 몇 년에 걸쳐 난치병 치료를 위한 기금 1억 원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조성하여 난치병 치료 재단에 기부했다. 그에게 감동 받은 팬들은 정부에 세금으로 난치병 환자를 지원하는 복지법 제정을 청원하고 있다.

— △△신문

- ① 노직은 기부하는 행동 자체를 반대하겠군.
- ② 노직은 복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겠군.
- ③ 롤스는 복지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 ④ 롤스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부한 ○○○선수의 행동을 정의롭다고 판단하겠군.
- ⑤ 노직, 롤스는 모두 ○○○선수가 다승왕 상금을 받은 것은 자유 경쟁을 통해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인정하겠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74년 모네가 평범한 항구의 모습을 그린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출품했을 당시, 이 그림에 대한 미술계의 반응은 혹평 일색이었다. 비평가 루이 르루아는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모네의 작품명에서 명칭을 따와 모네와 그의 동료들을 인상파라고 불렀다. ㉠ 인상파 이전의 19세기 화가들은 배경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사건이나 인물, 사상 등을 주제로 하여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주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대상을 잘 짜인 구도 속에 배치하였고, 정교한 채색과 뚜렷한 윤곽선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을 의도적인 배치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거칠게 그린 듯한 ㉡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은 주제를 알 수 없는 미완성품이었다.

그렇다면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주제는 무엇일까? 인상파 화가들이 주제로 삼은 것은 빛이었다. 이들은 햇빛과 대기의 상태에 따라 대상의 색과 대상에 대한 인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들은 어두운 작업실 대신 밝은 야외로 나가 햇빛 속에 보이는 일상적인 풍경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인상파 화가들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을 표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빛의 변화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므로 사과와 빨간색이나 나뭇잎의 초록색 같은 대상의 고유한 색은 부정되었다. 이전의 화가들과 달리 이들은 자연광을 이루는 무지개의 일곱 가지 기본색과 무채색만을 사용하여 모든 색을 표현하였다. 서로 다른 색을 캔버스 위에 흩어 놓으면 멀리서 볼 때 밝은 빛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물감을 섞는 대신 캔버스 위에 원색을 직접 칠했다. 또한 대상의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그려 나갔고 그 결과 화면에는 짧고 거친 붓자국이 가득하게 되었다. 대상의 윤곽선 역시 주변의 색과 섞여 흐릿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시시각각 다르게 보이는 대상의 미묘한 변화와 그 인상까지 그림에 표현되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

인상파 화가들은 빛과 대상의 색, 그리고 대상이 주는 느낌을 그림의 주제로 삼으면서 그림이 다룰 수 있는 대상의 폭을 ‘주변에서 보이는 일상적인 풍경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넓혔다. 이전의 그림과 달리 인상파 그림은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으면 될 뿐이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즐기는 그림이 미술사에 등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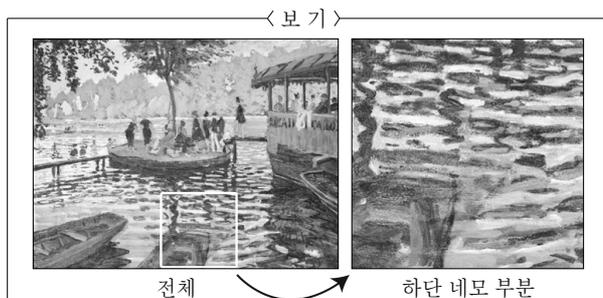
22. 윗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인상파라는 명칭에 대해 인상파 화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 ② 인상파 화가들은 대상의 색채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을까?
- ③ 인상파 그림은 등장 당시에 왜 혹평을 받았을까?
- ④ 인상파 그림의 미술사적 의의는 무엇일까?
- ⑤ 인상파라는 명칭은 어떻게 붙여진 것일까?

23. ㉠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와 달리 ㉡는 대상의 고유한 색을 중요하게 여겼다.
- ② ㉠와 달리 ㉡는 배경지식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
- ③ ㉠와 달리 ㉡는 일상적인 풍경과 평범한 사람들을 주로 그렸다.
- ④ ㉠와 달리 ㉡는 자연광을 이루는 기본색과 무채색만으로 그림을 채색했다.
- ⑤ ㉠와 ㉡는 모두 정교한 채색을 중요하게 여겼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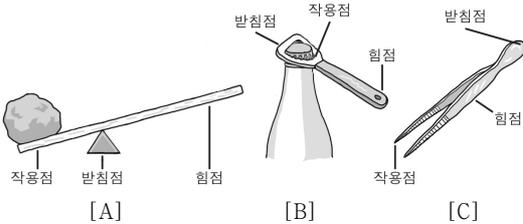


이 작품은 모네의 「호수」로 인상파 회화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호수의 표면은 색을 섞는 대신 원색을 흩어 놓는 방식으로 그려졌고, 물결 위에 흔들리고 있는 보트의 윤곽선은 흐릿하게 표현되었다.

- ① 모네는 그림 속의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했군.
- ② 모네는 호수의 물결에 반짝이는 빛에 주목하여 이 그림을 그렸군.
- ③ 모네는 이 그림을 통해 호수에 대한 자신의 느낌까지 표현하려고 했군.
- ④ 모네는 원색을 흩어 놓음으로써 호수 표면의 밝은 빛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했군.
- ⑤ 모네는 보트의 윤곽선을 흐릿하게 표현하여 시시각각 다르게 보이는 보트의 미묘한 변화를 표현했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의 팔이 지레의 원리로 움직인다면 낫설게 느껴질 것이다. 인체에 적용된 지레의 원리는 무엇일까? 지레는 막대를 어떤 점에 받쳐서 그 받침점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 도구이다. 지렛대로 쓰이는 막대를 고정해 놓은 곳이 받침점, 지렛대에 힘을 주는 곳이 힘점,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곳이 작용점이다.



지레는 가운데에 어떤 점이 놓이느냐에 따라 1종, 2종, 3종 지레로 ㉠ 나뉜다. 1종 지레는 그림 [A]와 같이 작용점과 힘점 사이에 받침점이 놓여 있으며, 힘점과 작용점은 힘의 방향이 반대이다. 무거운 돌을 들기 위해서는 지렛대 끝에 힘을 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의 거리보다 받침점과 힘점 사이의 거리가 길수록 작용점에 미치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2종 지레는 그림 [B]와 같이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작용점이 놓여 있으며, 힘점과 작용점은 힘의 방향이 같다. 이 경우도 1종 지레와 마찬가지로 병뚜개 손잡이의 뒤쪽을 잡을수록 작은 힘으로 병뚜개를 딸 수 있다. 따라서 1, 2종 지레를 사용하면 작은 힘을 가하여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3종 지레는 그림 [C]와 같이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에 힘점이 놓여 있으며, 힘점과 작용점은 힘의 방향이 같다. 3종 지레는 1, 2종 지레와 달리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보다 짧기 때문에 작은 힘을 가하여 큰 힘을 얻을 수는 없다. 하지만 힘점을 짧게 움직여서 작용점을 길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핀셋의 경우, 힘점에 가하는 힘에 비해 작용점에 미치는 힘이 더 작지만, 힘점인 가운데 부분을 조금만 움직여도 작용점인 끝부분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3종 지레를 사용하면 짧은 거리를 움직여서 긴 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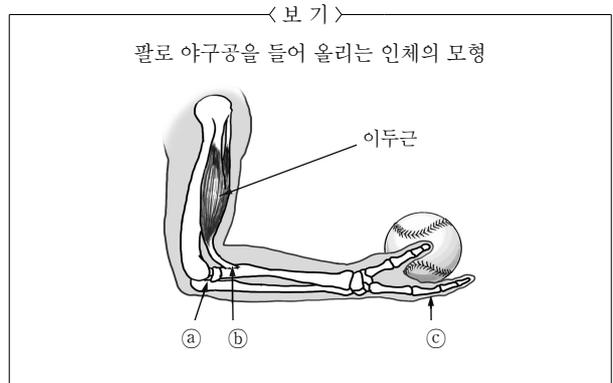
인체에서 팔은 3종 지레의 원리로 움직인다. 물건을 손으로 들어 올릴 경우, 팔꿈치를 중심으로 아래팔뼈에 연결된 이두근이 수축하면서 아래팔뼈에 힘이 가해지면 팔이 움직인다. 이 때 힘점에 가하는 힘은 작용점에 미치는 힘보다 크다. 그렇지만 근육이 수축한 거리보다 손바닥이 움직인 거리가 길기 때문에 거리 면에서는 효율적인 움직임이 된다. 인체는 팔뿐만 아니라 다리나 턱도 3종 지레로 되어 있다. 이 덕분에 우리는 근육을 짧게 움직여 팔다리를 크게 움직일 수 있고, 음식을 씹을 수도 있는 것이다.

25. 윗글을 과학 잡지에 실을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레의 활용 사례
-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 ② 지레의 발달 과정
- 1종 지레에서 3종 지레까지
- ③ 지레와 인체의 관계
- 인체에서 찾을 수 있는 1, 2, 3종 지레
- ④ 지레의 종류와 작용 원리
- 도구와 인체를 중심으로
- ⑤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도구, 지레
- 신기한 힘의 절약 도구, 3종 지레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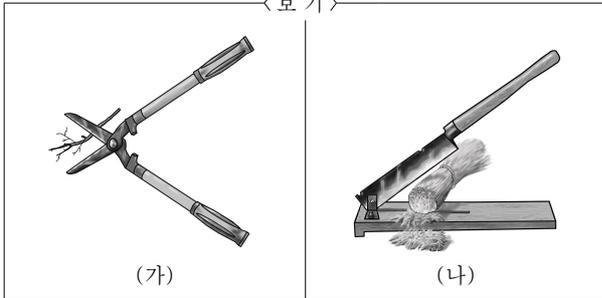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를 중심으로 b에 힘을 가하면 c가 움직인다.
- ② a에 힘을 가할수록 c가 움직이는 거리는 길어진다.
- ③ b와 c의 힘의 방향은 같다.
- ④ b에 가해지는 힘은 c에 미치는 힘보다 크다.
- ⑤ b가 올라가는 거리보다 c가 올라가는 거리가 더 길다.

27. <보기>는 지레의 원리를 이용한 도구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받침점이 작용점과 힘점 사이에 놓여 있군.
- ② (가)로 나뭇가지를 자를 때 손잡이 끝 쪽을 잡을수록 힘이 덜 들겠군.
- ③ (나)는 작용점이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놓여 있군.
- ④ (가)와 (나)는 모두 힘점과 작용점의 힘의 방향이 반대이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작은 힘을 들여 큰 힘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군.

28.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류(分類)된다 ② 분석(分析)된다 ③ 대체(代替)된다
- ④ 정의(定義)된다 ⑤ 판단(判斷)된다

[29~30] 다음은 독서 활동 중에 나타난 두 학생의 사고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윤지: 수업 시간에 자화상을 중심으로 한 고희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빈센트 반 고희」라는 책을 읽고 발표 내용을 정리해 봐야겠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미술 시간에 배운 고희의 작품 세계를 떠올려 봐야지. 고희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고 했지? 자화상을 중심으로 작품 세계를 알아야 하니까 책의 내용 중에서 자화상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정독하며 특징을 정리해야겠다. (책을 읽다가) 역시 미술 시간에 배운 내용이 책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 이 자화상은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포니즘’이 뭐지? 일단 읽어 보고 나중에 사전에서 찾아 보자. (책을 다시 읽는다.) 고희의 그림에 영향을 준 일본 판화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 ‘자포니즘’은 일본 그림의 영향을 말하는 거였구나. (다시 책을 읽다가 책을 덮으며) 이제는 발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다.

준수: 독서록을 써야 하는데, 무슨 책을 읽을까? 내가 좋아하는 화가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내용 설명이 쉽고 간결하게 정리된 책이면 좋겠는데. 「빈센트 반 고희」. 그래, 이 책이 좋겠다. 선생님이 책을 읽기 전에는 책에서 알고 싶은 내용 한두 개 정도를 메모한 다음 읽어 보라고 하셨지? (한 개를 메모한 후, 목차를 살펴본다.) 목차를 보니 고희의 작품을 창작 시기에 따라 수록해 놓았네. 그러니까 작품을 따라 읽다 보면 고희의 생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야. (책을 읽으며) 음. 고희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삶에 대한 공감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하는군. 그래서 고희의 그림에는 농부를 소재로 한 그림이 많구나. (책을 끝까지 읽은 후) 책을 통해 알게 된 고희는 가난하고 외로운 가운데에서도 매우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책을 읽으니 ㉠ 읽기 전에 메모했던 질문이 해결된 셈이군.

29. ‘윤지’와 ‘준수’의 읽기 전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기 전략	윤지	준수	
자신의 흥미를 고려해 책을 고른다.		✓	…… ①
읽을 책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		…… ②
글의 목차를 바탕으로 내용을 예측하며 읽는다.		✓	…… ③
독서의 목적에 따라 특정 부분을 선별하여 정보를 파악한다.	✓		…… ④
독서 활동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	…… ⑤

30.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고희는 주로 어떤 대상을 그렸을까?
- ② 고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무엇인가?
- ③ 고희의 그림은 어떤 화풍의 영향을 받았는가?
- ④ 고희는 주로 어떤 미술 기법을 사용해 그림을 그렸는가?
- ⑤ 고희의 그림에 나타나는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詩人)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學費封套)를 받아

대학(大學) 노-트를 끼고
늪은 교수(教授)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澣)하는 것일까?**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握手).**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 육첩방: 일본식 돗자리인 다다미 여섯 장을 칸 방.

(나)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땀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보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넒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질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이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 신경림, 「동해바다-후포*에서」 -

* 후포: 울진 아래 있는 작은 항구.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② 명사로 끝나는 시행을 반복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학하며 쓴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고 두 자아는 화해를 이루게 된다.

- ① ‘육첩방은 남의 나라’는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군.
- ② ‘홀로 침전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고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군.
- ③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는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군.
- ④ ‘시대처럼 올 아침’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최초의 악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화해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군.

3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날’은 화자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때를 의미한다.
- ② ‘티끌’은 화자 자신의 숨기고 싶은 모습을 의미한다.
- ③ ‘돌’은 생각이 좁고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화자 자신을 비유한다.
- ④ ‘동해바다’는 화자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다.
- ⑤ ‘채찍질’은 자신에 대한 화자의 엄격한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도시로 나와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고부 사이가 서서히 벌어지면서 어머니는 특유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다. 어머니 냄새를 핑계로 아내가 일주일째 들어오지 않자 집안은 어머니의 냄새로 가득 차게 된다. ‘나’는 질식할 것만 같은 어머니의 냄새를 약화시키기 위해 아내를 설득하여 데려오고, 어머니를 동생 집에 맡긴 후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냄새 제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게 다 뭐예요?”
아내가 주걱처럼 생긴 젓 주걱을 들고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여자의 몸으로 젓 지게를 지고 딸랑딸랑 종을 울리며 마을을 떠돌면서 젓 주걱으로 새우젓을 떠서 팔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무렵 어머니한테서는 폭 삭은 젓국 냄새가 진동했다. 젓 주걱에서는 그때의 어머니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어머니가 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오랫동안 도봉장수*며 젓 장수를 했다는 것을 알 턱이 없는 아내는 냄새나는 보파리 속의 이상한 물건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노망나신 거 아녜요? 어디서 이런 쓸데없는 물건들을 주워다 놓은 거죠?”

아내는 젓 주걱으로 녹슨 호미며 손저울과 되를 쿡쿡 쑤서 대며 거듭 물었다. 나는 말없이 녹슨 호미를 집어 들었다. 오랜 세월 손때 먹은 호미 자루가 변질거렸다. 물로 칼칼하게 씻은 듯 흙이 묻지 않은 호미 날 쪽에 불긋불긋 녹이 슬어 있었다. 예전에 어머니는 농사꾼 집에서 호미나 낫 등 농기구에 쇠뿔이 피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곤 했다. 나는 호미를 들고 냄새를 맡아 보았다. 손때 먹은 자루에서는 시지근한 땀 냄새가 났고 녹슨 날에서는 비릿한 녹내가 났다. 그리고 보니 어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보파리에서는 고리고리한 새우젓국 냄새를 비롯해서 짹짹한 간고등어 냄새, 시큼한 쇠뿔 냄새, 비리척지근한 멸치 냄새가 한데 어우러져 참으로 묘한 냄새를 만들고 있었다. 여러 가지 냄새들은 저마다의 색깔로 치장을 하고 소리를 내며 꿈틀대는 것 같았다. 그 냄새들이 아우성치며 내 뺨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냄새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따뜻하게 나를 감쌌다. 나는 그 냄새의 한 부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거부감이 일시에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 **어머니 냄새**의 진원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보파리 당장 갖다 버려야겠어요.”
나는 아내의 그 말에 심한 저항감을 느꼈다. 나와 아내는 어머니의 보파리를 버려야 한다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거나 한동안 실랑이를 했다.

“도대체 이런 허섭스레기를 버리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쓰레기?”

“아니면 보물이라도 되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도전적으로 변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떨려 왔다.

“형님, 혹시 어머니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휘감겼다.
“큰일 났네.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다니, 자세하게 이야기해 봐.”
“우리 집에 오신 후 맥이 빠진다니 밥도 안 드시고 방 안에만 누워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안 보여요.”

나는 할 말을 잃고 한숨만 길게 내쉬었다. 갑자기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 윤곽이 그려지지가 않았다. 동글납작한 얼굴에 끝이 살짝 매달린 가느다란 눈도, 뭉뚱한 코도, 크고 도톰한 입도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너, 어머니한테 냄새난다고 했나?”
나는 생똥스런 질문을 하고 나서 곧 후회했다.
“무슨 냄새?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냄새가 나겠조 뭐.”

“알았다. 어머니 꼭 찾아야 한다.”
나는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옷부터 꿩입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면서 가슴이 떨려 왔다. 자동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우선 도시를 빠져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큰길을 향해 달리는 동안 어머니가 했던 말이 뇌리에서 자꾸 부스르거렸다. 그 냄새는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말이 별장계 달궈진 부젓가락처럼 오목가슴을 뜨겁게 파고들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병든 시아버지와 어린 두 자식을 위해 짐승처럼 살아온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온 신산한 세월이 발효하면서 풍겨져 나온 짙은 사람의 향기였다. 고통스러웠던 긴 세월의 더께 같은 것. 어머니의 냄새는 팔십 평생 동안 폭 곱삭은 삶의 냄새이며, 희로애락의 기나긴 시간에 의해 분해되는 유기체의 냄새가 분명했다. 나는 갑자기 ㉡ **어머니의 냄새**가 내 몸의 모든 핏줄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도시를 빠져나온 나는 무작정 고향으로 가는 국도를 타고 달렸다. 황금빛 들판에는 벼들끼리 온몸으로 서로에게 부대끼며 물결 치고 있었다. 땅의 혼령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 **어머니의 냄새**가 바람처럼 훑 덮쳐 왔다. 나는 국도 변에 차를 세우고 길게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의 향기로운 냄새가 아우성치며 온몸의 핏줄 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어머니의 향기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 문순태,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

* 도봉장수: 물건을 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사람.

34. 밑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적 문제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 ⑤ 작품 속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여 자신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5.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와 아내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준다.
- ② ㉡은 ‘나’의 내면에서 솟아오른 냄새이다.
- ③ ㉠과 ㉡은 ‘나’와 아내가 제거하고자 했던 냄새이다.
- ④ ㉠과 ㉡은 아내의 행동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⑤ ㉠과 ㉡은 ‘나’와 아내가 과거에 느꼈던 어머니의 냄새이다.

36.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아내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다.
- ③ [A]를 계기로 [C]에서 '나'와 어머니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줄어들게 된다.
- ④ [B]는 [C]에서의 '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적 배경이 된다.
- ⑤ [A]와 [B]에서 드러난 중심 사건이 [C]에서 해결된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이해와 소통의 길을 찾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 여정은 타인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이를 통해 현재와 과거의 삶을 연결하고 현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든다. 여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추억이다. 추억이란 타인과 함께 살며 겪었던 공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 ① 어머니가 사라진 사건을 통해 '나'는 어머니와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겠군.
- ② '나'가 동생에게 어머니의 냄새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나'와 동생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려는 의도였겠군.
- ③ '나'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고향으로 향하는 행위는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④ 보따리에 대한 '나'와 아내의 태도가 다른 것은 어머니와 공유한 추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나'가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서 어머니의 냄새를 향기로 재인식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몸 생겨날 때 입을 따라 생겼으니
 한평생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던가
 ㉠ 나 하나 짙어 있고 입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 전혀 없다
 평생(平生)에 원하기를 함께 살자 하였더니
 ㉡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로이 그리는가
 ㉢ 엇그제 입을 모셔 광한전(廣寒殿)*에 올랐는데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울 적에 빗은 머리 흐트러진 지 삼 년(三年)일세
 ㉣ 연지분(胭脂粉)* 있다마는 누굴 위해 곱게 할까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 짓는 것이 한숨이오 지는 것이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有限)한데 시름도 끝이 없네
 무심(無心)한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계절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고 많다

동풍(東風)이 살짝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梅花)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인가
 황혼(黃昏)녘에 ㉠ 달이 돌아 배갓말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 매화(梅花)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저
 입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 광한전: 달 속에 있다는 궁전. * 연지분: 볼에 바르는 연지와 분.
 * 암향: 그윽한 향기.

38.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사를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사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상승과 하강의 심상을 반복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적당 모티프'를 취하고 있다. '적당'이란 천상적 존재가 천상에서 지은 죄과로 말미암아 지상으로 유배 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천상계에서 임의 사랑을 받다가 지상계로 쫓겨 와 입을 그리워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천상계는 화자가 과거에 존재했던 공간이자 충족의 공간으로, 지상계는 화자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자 결핍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 ① ㉠은 화자가 천상계에서 임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던 모습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② ㉡은 화자가 적당하여 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③ ㉢은 화자가 과거에는 천상계에 존재하다가 현재는 지상계로 쫓겨 왔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은 입이 없는 결핍의 공간에서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은 지상계로 화자를 쫓아낸 대상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이겠군.

40.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은 대상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반영한다.
- ② ㉢은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징하는 소재, ㉤은 화자의 심리적 방황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에게 부재하는 대상을 떠오르게 하는 자연물,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연물이다.
- ④ ㉢와 ㉤은 모두 현실에서 겪어야 할 외부적 시련을 상징한다.
- ⑤ ㉢와 ㉤은 모두 부정적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화자의 현재 모습을 나타낸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왕생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양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자란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왕생은 중국외교사절단의 일원이 되고, 중국으로 가던 도중 용왕의 딸과 혼인하게 된다. 이후 왕생은 용궁을 떠나 송악산 아래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칠푼베로 만든 두건에 배운 입을 도사 한 사람이 손에 육환장을 들고 어깨에 바람을 메고 와서는 왕생에게 절을 했다. 왕생이 물었다.

“뉘시오?”

도사가 대답했다.

“저는 산인입니다. 산수를 좋아해서, 기러기가 남북으로 오가고 뜬구름이 동서로 흘러가는 것처럼 사방을 유유히 다니고 있지요. 그러다 이곳에 이르러 댁의 집터를 보니 참으로 천하의 명승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1년 안에 성인(聖人)이 태어나시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소중히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뒤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왕생이 말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소리군요. 부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기 바라오. 그런데 그대의 성명을 알 수 있겠소?”

도사가 대답했다.

“제 이름은 도선*으로, 중국 사람 일행*의 제자입니다.”

도사가 절하고 물러갔다. 왕생은 도사의 말을 듣고 혼자 속으로 기뻐하며 큰 자부심을 가졌다.

이달부터 문득 아내에게 태기가 있더니 열 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콧대가 우뚝 솟고 용과 같은 제왕의 상(相)에 이마가 흰하고 눈은 셋벌처럼 빛났으며, 상서로운 광채가 은은히 비치고 기상이 엄숙했다. 왕생은 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3년 뒤 과연 도사가 다시 찾아와 왕생에게 축하 인사를 올렸다.

“주인장께서 성인을 낳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잘 기르시면, 흉악한 무리들을 모조리 평정하고 삼한(三韓)을 통일하여 도탄에 빠진 만백성을 구하고 후세에 큰 이름을 남길 분이 되실 것입니다.”

거듭 축하 인사를 하고는 떠나갔다.

그 뒤 부인이 또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을 낳고부터는 모습이 초췌해지더니 얼굴에 핏기가 없고 갑자기 숨이 끊어질 듯 숨기운이 약해지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왕생이 물었다.

“무슨 병이기에 몸이 이리도 수척해지는 거요?”

부인이 대답했다.

“저는 원래 용의 자손이기 때문에 때때로 변신하여 기운을 펼쳐야 하는데, 낭군을 따라온 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병이 돼서 죽을 날이 임박했으니 슬프기 그지없네요.”

왕생이 말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요. 내가 한번 보고 싶으니 변신을 해 보오.”

“변신하는 걸 못 볼 거야 없지만, 부부간에는 보여 드릴 수 없어요. 낭군이 만일 제 병을 낫게 하시겠다고 하면 제 말대로 해주세요. 앞으로 낭군이 이 방을 출입하실 때 종들을 먼저 보내 알린 뒤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제 병은 자연 낫게 될 거예요.”

“어려울 게 뭐 있겠소?”

그 뒤로 방을 출입할 때마다 부인의 말대로 종들을 먼저 보내 알린 뒤에 들어가니, 부인은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었으므로 병세가 차츰 좋아졌다.

하루는 왕생이 급한 일이 있어 부인의 말을 잊고서 먼저 알리지 않은 채 총총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부인은 딸가의 작은 우물 안에서 바야흐로 변신을 하고 있었다. 황룡으로 변해 머리는 구름 위로 쳐들고 꼬리는 우물 안에 두었는데, 그 길이가 100여 길이나 되었고 몸통의 굵기는 여남은 아름이나 되었다. 입에 문 여의주는 향아리만큼 컸고, 등에 난 갈기는 모양이 키와 같았다. 생생한 광채는 혹은 황금색으로 보이고 혹은 순백색으로 보였으며, 차가운 기운이 사람을 엄습하며 비린내가 진동했다.

왕생은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물러 나왔다. 차분히 생각해 보았지만 아내와 즐겁게 지내던 정이 짝 사라지며 멀리하고 싶은 마음만 일어날 뿐이었다.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며 속을 썩이고 있을 때 부인이 종을 시켜 왕생을 불렀다. 왕생이 안으로 들어가니 부인은 엷은 화장을 하고 소복을 입은 채 난간에 기대 앉아 있었다. 예전의 모습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지만, 단지 근심 걱정에 쌓여 수심 어린 기색이 얼굴에 가득했다. 부인이 왕생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의 도는 부부간에 시작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물없이 친한 부부간이라도 무례하거나 신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낭군계신 아무 통보도 없이 증문안으로 들어오셨으니, 이는 무례한 일입니다. 부부간에서 시작되는 군자의 도리를 벌써 잃으신 것이지요. 이제 변신한 제 모습을 보셨으니 마음속으로 겁을 먹고 정이 이미 떨어졌을 겁니다. 지난날의 즐거움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으니 저는 떠나겠습니다. 아들딸을 모두 데리고 가야겠지만 그건 너무 심한 일일 것 같아 아들은 남겨 두고 가겠어요. 잘 기르고 가르치시면 한 나라의 군주가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한스러운 일은 제가 3년만 더 있었더라면 반드시 성스러운 아들을 낳아, 중국을 쓸어버리고 9주를 평정해 삼대의 정치를 펼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낭군이 신의 없는 행동을 하신 탓에 그 일을 볼 수 없게 됐으니 꼭 한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늘이 정한 운명이요,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어찌겠습니까!”

왕생이 말했다.

“비록 부부간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뭐 있겠소? 부디 떠나지 말았으면 하오.”

부인이 말했다.

“제 마음은 결정됐어요.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났으니, 아무리 많은 말을 하신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이별했다. 부인이 딸을 거드랑이에 끼고 뜰 가운데 서서 바람과 비를 부르니 먹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비바람이 크게 일더니 우르릉 광천둥이 치고 번갯불이 번뜩였다. 그러자 부인은 황룡으로 변해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날아 올라갔다.

- 작자 미상, 「왕수제」 -

* 도선: 신라 말의 승려.

* 일행: 중국 당나라 때의 승려이자 천문학자.

41. 윗글의 서사 일부를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부인이 변신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였다.
- ② ㉡는 부인이 ㉠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이다.
- ③ ㉢는 왕생의 부주의함 때문에 발생하였다.
- ④ ㉣로 인해 왕생은 ㉢의 상황에 처하게 되고, 아들을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 ⑤ ㉣의 상황에서 왕생은 ㉣를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였다.

42. <보기>의 ㉠ ~ ㉣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고전 소설은 ㉠ 선인과 악인을 대립시켜 권선징악(勸善懲惡)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성격의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이며, 주인공은 외모가 출중하고 재주가 남다르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은 ㉡ 시간적 순서를 따르고 있어 구성상의 입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서사의 초점이 한 인물의 일생이나 그의 역경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행복한 결말이라는 상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고전 소설에서는 신적 존재와 인간이 인연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 초경험적인 현상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43. [A]에 나타난 '부인'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운명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② 유교적 도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감성을 자극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속마음을 추측하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
- ⑤ 자신이 하려 했던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촌장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촌장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서가 텃이 깔려 있고 땅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디. 그레 이곳엘 찾아온 거예요.

나 잘 오셨습니디, 촌장님.
촌장 오래 뵈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 머리가 더 많아졌군요.
나 촌장님두요, 더 늙으셨어요.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텃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나 이리요? 어느 쪽이쥬?
촌장 저쪽요, 저쪽. 쥘레 당갈 밀이던가요.....
나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나**에게 보인디.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나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디.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디. '이리떼는 없구,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디.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텃은 아니디. 난 나 혼자만을 와 달라구 하지 않았디?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디더디.

나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땅루를 부순디구 그런디.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치기구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디면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디.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밀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디.

나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쥬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쥬니?
나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나 아셨으면서 왜 숨기쥬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 텃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디.
나 거짓말 마쥬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쥬! '이리 떼가 몰려온디.'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디.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디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디.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디.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난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텃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디.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된디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늑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 이강백, 「파수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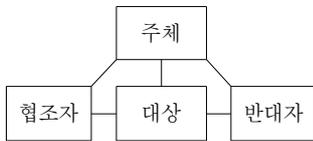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다양한 효과음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대사를 통해 무대 밖 극중 공간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걸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⑤ 소품을 활용하여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극에 등장하는 인물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는 행위소 모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행위소 모델에는 ‘주체’와 그 주체가 추구하는 ‘대상’, 주체를 돕는 ‘협조자’, 주체와 갈등 관계에 있는 ‘반대자’ 등의 요소가 있다. 이 모델에서는 ‘주체’에 따라 각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요소가 없을 수도 있다.



- ① ‘주체’가 ‘다’라면 추구하는 ‘대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주체’가 ‘다’라면 존장은 진실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반대자’라고 할 수 있다.
- ③ ‘주체’가 ‘다’라면 ‘나’는 이리 때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협조자’라고 할 수 있다.
- ④ ‘주체’가 존장이라면 추구하는 ‘대상’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주체’가 존장이라면 ‘성난 사람들’은 마을의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반대자’라고 할 수 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